

2023. 2. 28.

수 신 : 양주시의회의장

제 목 : 경기북부 거점 공공의료시설 유치촉구 건의안

위의 건의안을 「지방자치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 경기북부 거점 공공의료시설 유치촉구 건의안 1부.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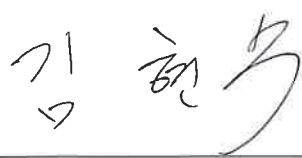

발의자 김현수 의원 (인)

김현수 의원 등 7인

(찬 성 자 서 명 별 첨)

찬 성 자 서 명

(경기북부 거점 공공의료시설 유치 촉구 건의안)

의원명	날인(서명)	비고
윤 창 철		
한 상 민		
이 지 연	이지연	
정 현 호		
최 수 연	-	
김 현 수		
정 희 태		
강 혜 숙	강혜숙	

경기북부 거점 공공의료시설 유치촉구 건의안

(김현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1330
----------	--------

발의연월일 : 2023. 2. 28.

발 의 자 : 김현수의원 등 7인

1. 주문

- 경기북부 거점 공공의료시설을 양주시 유치를 강력히 촉구함

2. 제안이유

- 양주시는 252,939명(2023년 1월현재/외국인 포함)의 시민이 거주하고 있고, 양주신도시(옥정, 회천), 광석택지 지구개발, 장흥 공공주택지구 조성 등 2035년까지 50만명의 인구 증가가 예측된다.
- 양주시는 종합병원과 응급의료 체계의 부재로 인해 인근 지역의 의료 서비스에 의존하고 있는 열악한 실정이다.
- 교통, 문화, 지리적 접근성 등을 감안할 때, 경기북부 지역을 아우를 수 있는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춘 곳은 양주시이므로 이에 경기북부 거점 공공의료시설 유치를 제안함.

3. 보낼 곳

- 경기도, 양주시 등

5. 붙임 : 경기북부 거점 공공의료시설 유치촉구 건의안 전문

경기북부 거점 공공의료시설 유치 촉구 건의안

윤석열 정부에서는 110대 국정과제로 필수공공의료 인력과 인프라 강화를 통해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선정하였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변화와 평화의 기회를 만드는
경기도를 위해 경기 동북부권 공공의료원 설립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워 추진 중이다.

현재 경기 북부에 설립된 의료원은 40년이 지나 노후화된 병원 건물과 협소한 부지에
의료시설이 과밀집되어 있어 진료 및 치료환경이 열악하고 의료기능과 의료공간 배치의
연계 부족으로 신축이전이 시급히 필요하다. 경기도의료원도 자체 검토 결과에 따라
신축이전에 대한 필요성을 중앙부처 및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요청하였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19년 11월 지역의료 강화대책으로 ‘지역민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양주, 동두천, 연천, 의정부를 아우르는 공공병원 신축을 목
표로 하는 공공의료 자원확충 계획이 발표되었다.

경기 북부지역은 345만 명으로 서울과 경기 남부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인
구가 많은 지역이다. 그러나 생명과 직결된 의료서비스 확충은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접경지역을 비롯한 경기 북부 10개 시군은 고질적으로 의료자원, 의료시설 부족을
넘어 의료 공백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양주시는 의료서비스 확충이 절실한 실정이다. 양주시는 옥정·회천·광석·
장흥 등 신도시 개발 및 입주가 진행 중이며, 2035년까지 50만 명까지 인구 증가가
예상된다. 또한 공장 2,666개소,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8,507개소, 기타 인허가 미등록
업소 등을 비롯하여 2만8천여개의 사업장과 10여만 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종합병원과 응급 의료체계 부재로 인해 주로 인근 의정부시나 서울특별시
은평구 등에 위치하는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어 응급환자 발생 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사례가 발생하는 상황으로 의료환경이 매우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양주시의 향후 인구 확장성과 산업구조를 감안할 때 의료수요는 넘쳐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종합병원은 고사하고, 일반병원이 3개소였으나 2022년 12월 말 이마저도 1개소가 폐업하면서 일반병원 2개소가 전부인 상황이다.

또한 경기도에는 67개의 종합병원이 있으나, 양주를 포함함 5개 경기북부 시군의 종합병원은 7개에 불과하며, 이러한 열악한 의료체계로 인해 2021년 기준 10,865명, 하루 평균 30명의 응급환자가 발생하였고, 양주내 시설 부족으로 다수가 인근 지역의 응급실을 이용 하였다

이에 양주시는 2013년부터 도시기본 계획수립에 따른 의료기관 설치 검토를 요청하였고, 2017년 양주시 옥정신도시 내 산 92-9번지 일원에 의료 시설부지 55,697㎡에 400병상 이상 사업 규모의 공공병원 건립을 제안한 바 있다.

양주시는 경기 북부지역의 남북축인 동두천, 연천, 의정부, 동서축인 포천을 아우르는 중심 도시로써 거점 공공병원의 입지적 여건에 최적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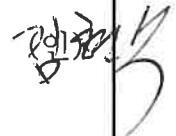
현재 전철 1호선, 국도 3호선 및 대체 우회도로 등 접근성이 우수하고, 향후 GTX-C노선, 전철 7호선,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등의 개통으로 경기북부 권역을 30분 내 진료권으로 둘 수 있는 교통의 핵심 거점이다.

우리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25만 양주시민을 대표하여 경기북부 공공거점 의료 시설을 양주에 신축하여 경기북부 도민과 양주시민에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가 공급 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강력히 요구한다.

2023. 2. 28.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5분 자유) 발 언 신 청 서

발언신청일	2023. 2. 13.
발언요구일	2023. 2. 20. : (제352회 양주시의회)
발 언 의 원	김현수 의원
발 언 요 지	양주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여 변화 및 발전을 보여주기 바람.
<p>「양주시의회 회의 규칙」(제32조, 제38조,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발언을 신청합니다.</p> <p>신청자 김 현 수 </p> <p>양주시의회 의장 귀하</p>	